변화무쌍 40년 "변함없는 '水墨 사유'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에서 선보이는 김대원 작가가 최근작 '거룩한, 거창한, 거추장스러운'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김대원 교수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 … 30일~6월 29일 상록전시관

서양화 전공 … 문장호선생 영향 수묵 입문 담백한 표현서 과감한 색까지 80여점 선봬

조선대 미술대학 김대원(65) 교수가 40여 년간 그 린 작품들을 모아놓고 보면 문득 '과연 한 작가의 그 림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한 변화들 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 작품들은 '수묵 정신'으로 귀 결된다. 작가는 평생 수묵 정신을 바탕으로 사유하 고, 그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면서 색을 받아들였다.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대원 교수가 광주시립미술관의 초대를 받아 5월30일부터 6월29 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매년 기획하고 있 는 중진작가초대전으로 지역 미술계 발전에 기여하 고 화업을 일군 작가를 선정, 조명하는 전시다.

김 교수는 '지암 김대원 마음을 걷다'를 주제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40여 년 농안 사유를 바탕으 로 확장해온 결과물 80여 점을 선보인다. 인터뷰 영 상자료, 작가의 여행 감흥이 그대로 전해지는 스케치 화첩 등도 전시된다.

작품들에서는 '소통 없이는 예술이 존재할 수 없 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작가의 고뇌와 예술세계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전시를 기획한 광주시립미술관 황유정 학예사는 이런 김 교수와 그의 작품 세계를 고목에 비유했다.

"산세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해묵은 고목에도 봄 이면 어린 나무처럼 연두 빛 새순이 솟아나듯 각질화



'일상 한가운데'

된 가지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줄기가 나무를 더 울 창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어린 나무와 같았던 김 교수의 작품은 40년이 흐른 뒤 하나의 고목이 됐다. 그는 90년대 중반까지 담백 한 색감의 수묵작업에 집중했다. 그는 관념산수를 넘 어, 빼어난 세필로 대상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 는 실경산수를 추구했다. 그의 초기작들은 그만큼이 나 사실적이어서 현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던 그가 묵향에 반하 게 된 계기는 평생 스승인 호남 남화산수의 산증인 희재 문장호 선생을 만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는 1990년대 중반, 이전 작품들과는 금 을 긋는 작품들을 발표한다. 끊임없이 걸어온 작가 의 길에서 현대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 그의 작품들 에서는 색이 과감해지고, 실경산수는 심상산수로 바 뀐다. 그리고 작품에 설화를 입힌 '옛날 옛적에'시리 즈가 탄생한다. 주인공이 되는 호랑이로 작품의 중심 을 잡고 옛날이야기를 끄집어내 화폭을 메웠다. 토속 적인 민간설화를 모티브로 한국인의 정서를 표출하 기 시작했다.

26일 만난 그는 이 시기를 작가로서 가장 힘들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수묵산수는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수묵을 연마 하기 위해 긴 세월이 필요한 이유지요. 기본기를 배우 고 붓을 세우는데 만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수묵은 배우는 게 아니라 수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연마해 그 세계에 들어서면 그만큼 빠져나오기 힘들죠. 저는 모험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작가는 또 다른 변화를 꾀했다. 오 방색과는 다른 원색의 색상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 는 모든 것을 시를 쓰듯 화폭에 담아 마음속 이야기 와 인간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한국적 수묵을 끌어내 현대적으로 치환하고 자한 작가의 노력이다.

"한지와 붓, 먹을 현대적 도구로 치환하고, 실경을 심상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길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났을 뿐 그 길의 목표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제 비 구상 작품도 실경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요. 수묵산 수가 있었기에 대상을 더 깊이보고, 또 그 안에 것들 을 읽은 것입니다." 문의 062-613-539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역발상' 클래식 앙상블

'라온퀸즈 퀸텟' 창단 연주회 … 31일 금호아트홀

클래식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공연 팸플릿이 인상적이었다. 화려한 의상 을 차려 입은 사진이 눈에 확 띄었다. 악기 구성도 이채롭다. 보통 클래식 퀸텟(5중주) 을 벗어난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루트, 피아노의 조합이다.

여성 음악인 5명으로 구성된 '라온퀸즈 퀸텟' 창단연주회가 열린다. 31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6월2일 오후 7시 순천문예회관 소극장.

라온 퀸즈 퀸텟이 결성된 건 지난해다. '라온'은 순우리말로 행복함, 즐거움을 뜻

플루트를 맡고 있는 김율희씨는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대학을 거쳐 동신대 등에 출강중이며 클라리넷의 박소희씨는 광주대 와 독일 부퍼탈 국립음대에서 공부했다. 수 원대와 숙명여대 대학원을 거친 비올리스 트 임지선, 목포대와 호신대 대학원을 졸업 한 첼리스트 김지남, 전남대와 동대학원에 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백승유씨가 합류했 다. 29세부터 33세까지 비슷한 연배여서 마

"앙상블은 팀웍이 중요하죠. 여자 다섯명 이 마음이 아주 잘 맞아요. 인간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또 연습도 충실히 해서 롱런하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저를 빼고는 다 결혼 전인데, 결혼해서도 꼭 광주에 살자고 이야 기하고 그래요.(웃음)" (김율희)

이들은 기존 클래식 앙상블과는 차별성 을 두려한다. 역발상이다. 딱딱하다고 느껴 지는 클래식이 대중들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레퍼토리를 짜고 퍼포먼스도 한다. 때론 "이게 클래식 공연이야?" 의아해질지 도 모른다.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 역시 뮤지컬 넘버 부터 정통 클래식까지 다양하다. 어쿠스틱 카페의 '라스트 카니벌'을 시작으로 베버의 '트리오 G단조 작품 63', 모차르트의 '클라 리넷과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498', 림스키 코르사코프스키의 '왕벌의 비 행', 뮤지컬 '캣츠' 중 '메모리',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등을 연주한다.

/김미은기자 mekim@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불새'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 30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그림자극과 클래식 이다. 러시아 민속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게 즐길 수 있는 공 연이다.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영언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날 연주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그림 자극과 함께 감상한다.

러시아발레단의 공연을 진행했던 기획자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발레와 안무가 포킨의 제의로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한 발레 음악 '불새' 모음곡은 화려한 색채감이 느껴지는 화음과 선율, 강렬한 리듬이 어우러진 작품

품으로 황금빛 날개를 가진 불새의 도움으 로 마왕에게 잡힌 왕녀를 구출하기까지의 모험을 환상적으로 묘사했다.

그림자극은 1982년 창단 후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무대에 올려온 극단 '영'이 진행 한다. 극단 '영'은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의 그림'을 그림자극으로 제작·발표하기도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2번' 도 만날 수 있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5월 31일(토)출발 당일 기차여행 고수동굴/구인사/온달관광지

- 10E/1E-1/LELO			
시간	일 정		
06:30	광주역 출발		
11:00	단양역 도착		
16:00	단양 고수동굴/구인사/ 온달 관광지 관광		
22:50	다야여 추반 / 과즈여 도차		

77-27-2	71		-		Ο,	
성인	7	5,0	0	0 원~		
겨근	7	3 0	n	∩ 위~		

소아 65,000 원~ 8도 /3,000 ^{년^} 소마 70,000 원~

6월 13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부산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시간	일 정
22:00	광주역 출발
04:30	용궁사/해운대/동백섬/ APEC 누리마루/이기대 공
13:30	자갈치시장 관광
22:30	부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성인(경	로) 69,000 원~

6월 20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부석사/선비촌/안동하회마을

23:50	광주역 출발
05:30	풍기역 도착
06:30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 /안동 하회마을 관광
21:30	풍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경로 75,000 원~ 소아 74,000 원~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저도지/우르다/도디

영당인/결공エ/국エ		
시간	일 정	
1일째	광주역 출발	
20:50	경구의 돌림	
2일째	정동진역 자유관광	
04:40	(일출, 모래시계공원)	
11:30	독도 관광	
17:30	울릉도 육로 관광 A코스	
3일째	울릉도 육로 관광 B코스/	
08:00	해안 산책로 관광	
02: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32	0,000원~소아 290,000원~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백담사/월정사/양떼목장 지역

시간	밀 정		
1일째 20:50	광주역 출발		
2일째	정동진역 자유관광		
04:40	(일출, 모래시계공원)		
09:00	백담사/통일전망대/ 화진포의 성 관광		
3일째	월정사/상원사/양떼목장/		
10:30	주문진어시장 관광		
19: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22	0,000원~소아 200,000원		